

카드뉴스 제71호 | 안락사/연명치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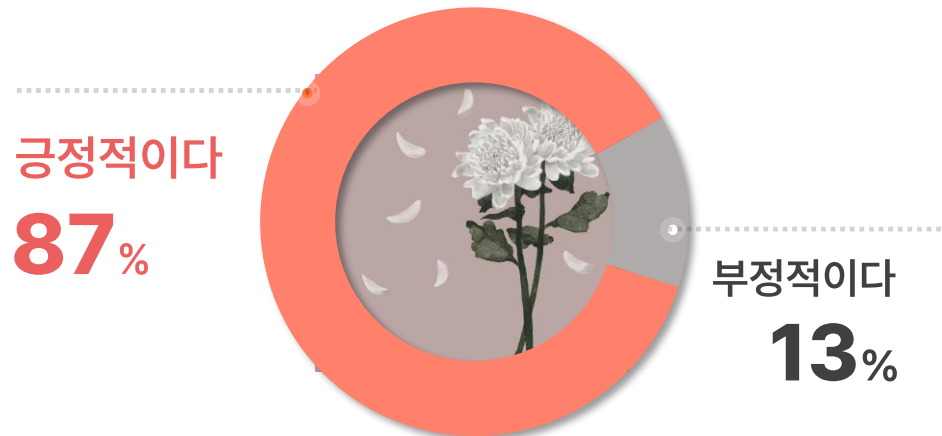
삶의 마지막,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신가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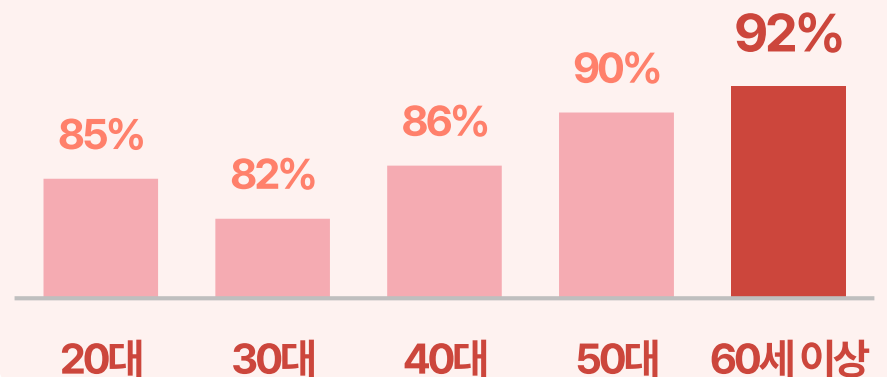
대다수 국민 안락사에 대해 **긍정적**, **60세 이상** 92%로 가장 높아

Q. 안락사에 대한 인식

(전체 1,044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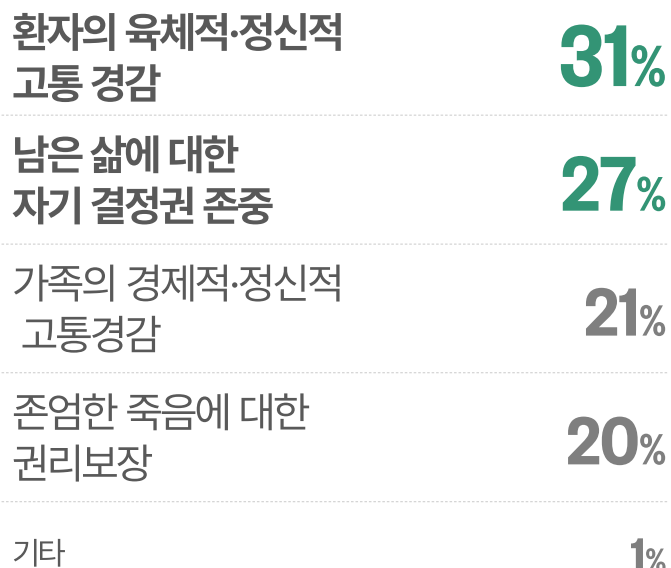
안락사 '긍정적이다'



육체적·정신적 고통의 탈출구 VS 생명 존중가치를 훼손하는 부도덕 행위

Q. 안락사에 대해 긍정적인 이유

(안락사 긍정적 인식 912명)



Q. 안락사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

(안락사 부정적 인식 132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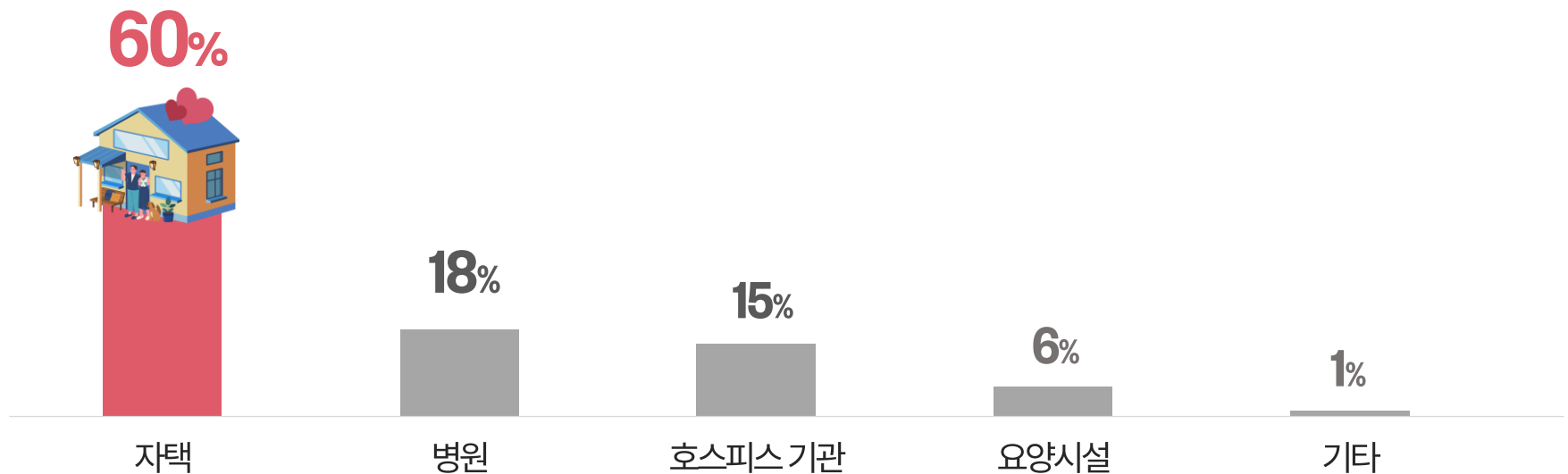


내 삶의 마지막 순간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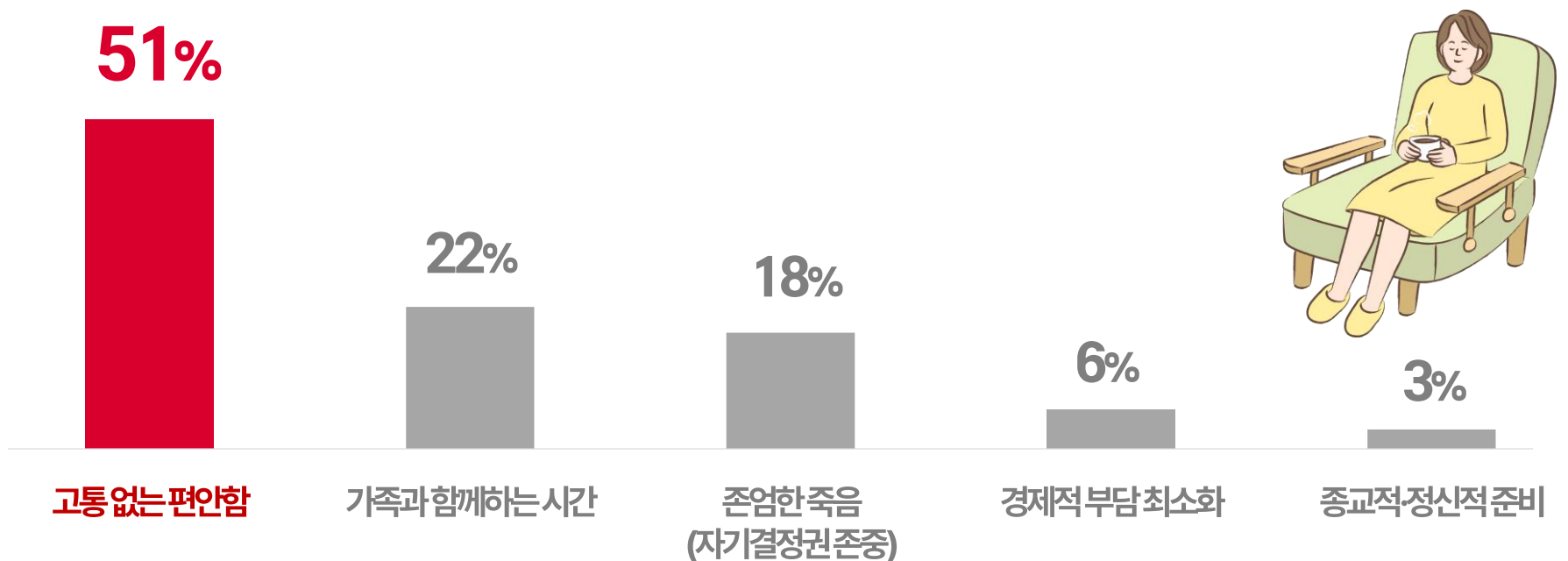
내 집에서 고통없이 편안하게 임종을 맞고 싶어

Q.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싶은 장소

(전체 1,044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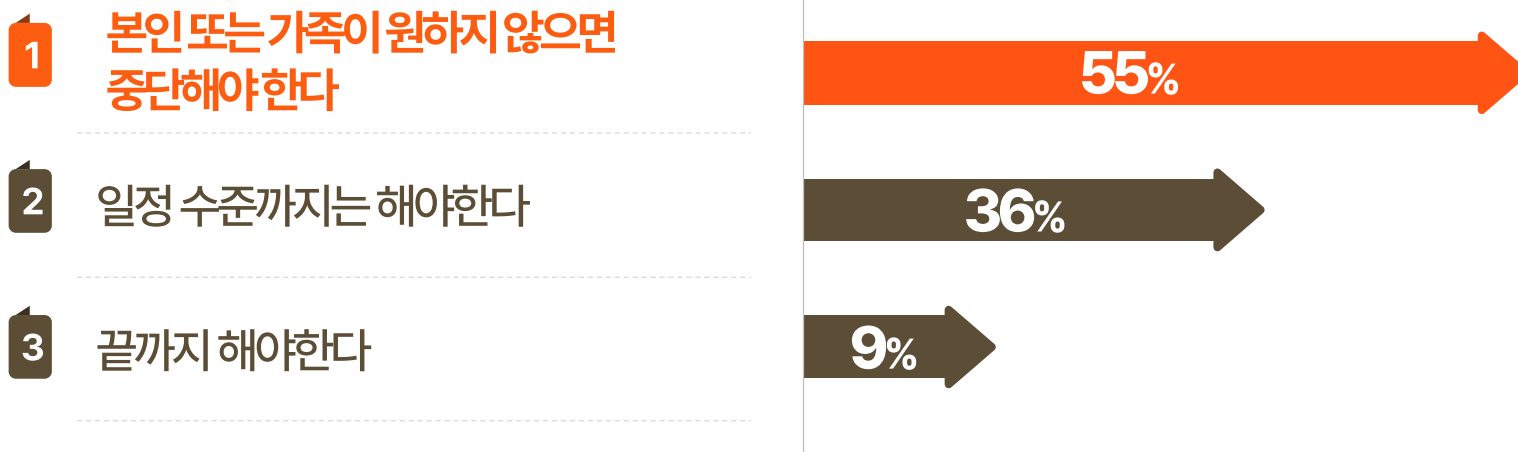
Q. 임종을 맞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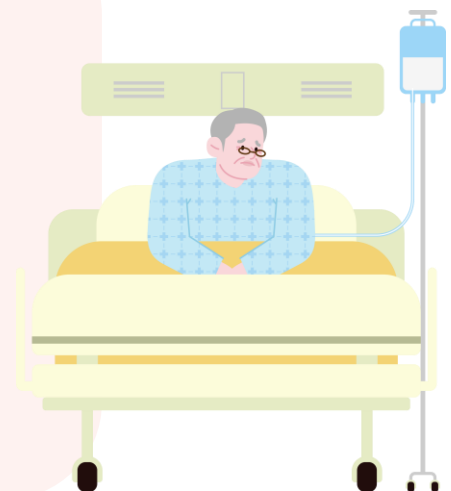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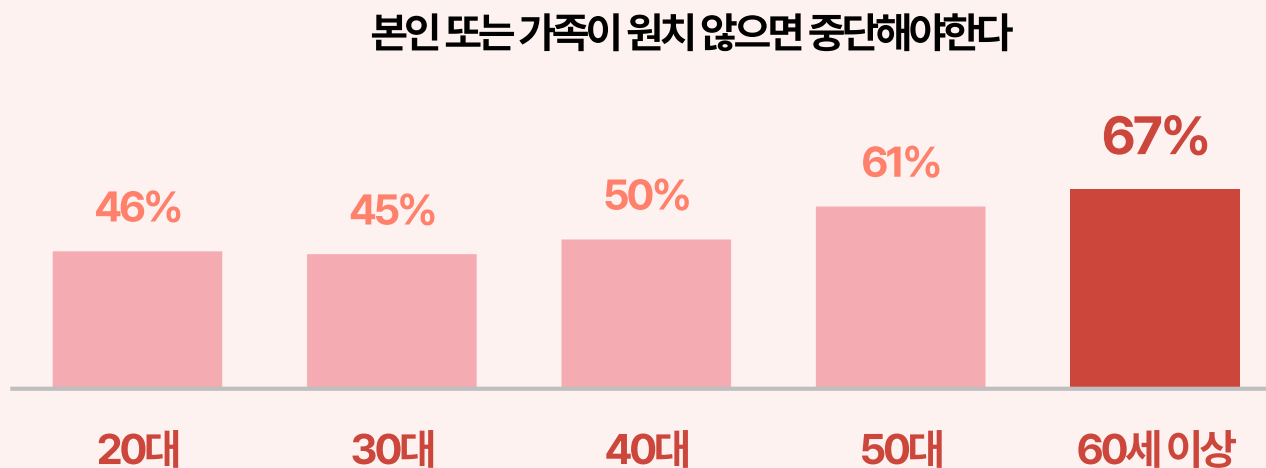
본인 또는 가족이 원치 않으면 연명치료 중단해야

Q 임종기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(전체 1,044명)



60세 이상 노년층 3명 중 2명 '원치 않는 경우 연명치료 중단' 희망



'연명의료결정제도' 인지도 높고, '사전연명의료의향서' 등록 희망자 많아

<연명의료결정제도>

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며,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,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

출처: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

● **잘알고있다** ● **들어본적있다** ● **모른다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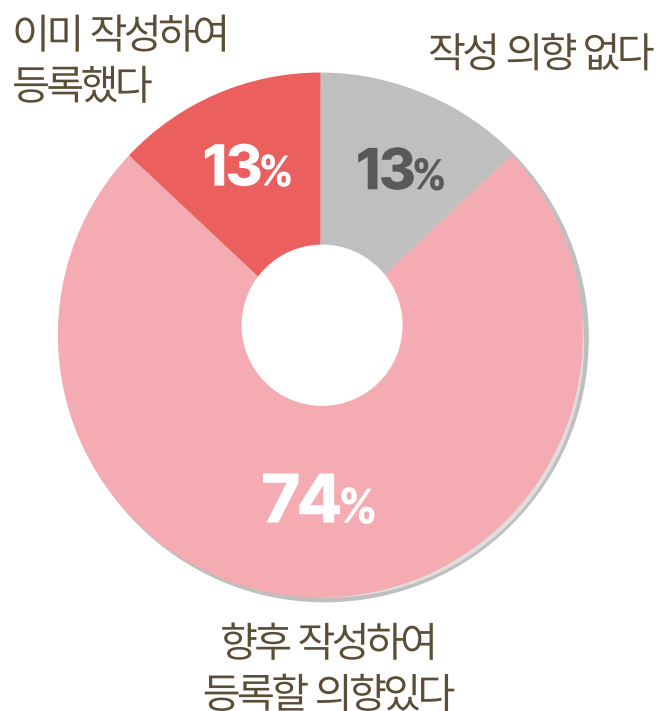
(전체 1,044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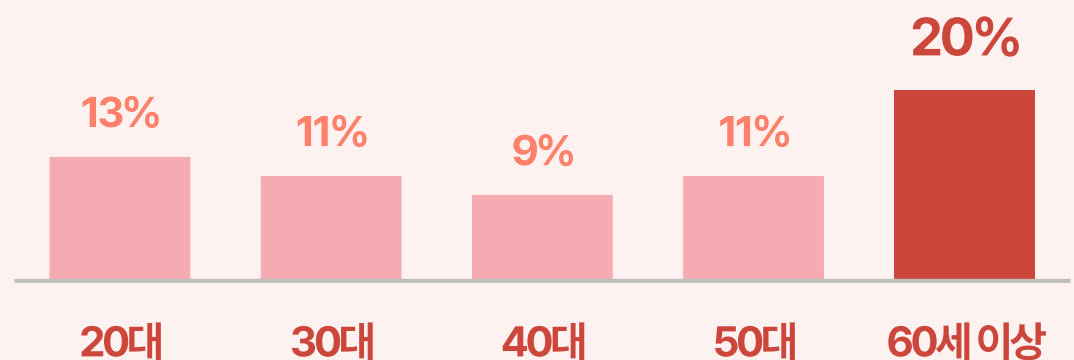
Q. '사전연명의료의향서' 작성 및 등록 의향

(전체 1,044명)

60세 이상 노년층 **5명 중 1명** 이미 '사전연명의료의향서' 작성



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미 작성하여 등록했다



‘어떻게 살 것인가’ 만큼 ‘어떻게 죽을 것인가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

조사기간

▶ 2025.09.12.~15.

조사방법

▶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
온라인 웹 조사

조사대상

▶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
1,044명



케이스탯은 품질 높은 데이터 생산을 바탕으로
고객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인사이트와 컨설팅을
제공해 드립니다.

Kstat



<http://www.kstat.co.kr>



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



02-6188-6000



admin@kstat.co.kr